

현대 성당건축의 성단구성과 성물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에 대한 건축적 해석 -

A Theological Study on the Furnishings of the Sanctuary of Modern Catholic Church

- Focused on the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of the Vatican Council 2 -

김정신* / Kim, Jung-Shin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architectural problems particular to the design of the sanctuary in Catholic churches. The paper is meant to address two distinct groups - clerics and architects. Architects do not tend to think the church buildings theologically or liturgically, and priests, though they are often trained in the arts, do not tend to look at buildings the same way architects do. Hence, my goal is to adequately address the concerns of each in a language the other will understand, thereby building a bridg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two main concerns of the study are to provide guidelines and reflection for liturgically correct buildings, and to re-establish the traditions of church buildings. I discuss the idea of the sanctuary in the Catholic church,(in chapter 2) and examine each of the main furnishings of the sanctuary with regard to history, liturgical use, symbolism and related pastoral concerns.(in chapter 3,4)

키워드 :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성단(sanctuary), 제대, 독경대, 사제석, 십자가상, 성찬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80년대 이후 한국은 교회의 폭발적인 양적성장과 함께 세계에서 교회건축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건축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형성이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회건축의 새로운 개념도 전례형태와 내부공간 구성에는 연결되지 못하고 외형과 장식에만 치우치고 있다. 그리고 교회건축의 핵심이 되는 성단(sanctuary)의 구성은 오히려 천편일률적이기까지 하며 구성요소인 성물들은 그 본질을 잃고 상품화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는 전례와 전례쇄신에 대한 몰이해와 전례의 기능과 상징에 대한 건축적인 해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교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존중하면서 시대성과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교회는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축에 연결시킬 수 있는 실천 신학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건축가나 미술가는 신학적이고 전례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

지 않으며, 성직자는 예술적인 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을 보지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톨릭 전례공간의 성단구성과 성물에 대한 실천신학적인 해석을 통해 교회건축을 주도하는 성직자와 건축가 및 미술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언어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전례거행을 위한 성당의 내부구조는 기본적으로 성단(sanctuary), 성체보존을 위한 장소, 회중석 및 고백소, 세례소 등의 성사집전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중앙 제대공간인 성단을 대상으로 한 문헌적 연구이다. 교회건축과 교회미술에 대한 현대 가톨릭 교회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¹⁾의 전례 현장에 명시되어 있다.²⁾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현장을 기초로 하고 공의

1)가톨릭 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현대에 적응시키며, 외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집된 공의회.(1962.10-1965.12)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등 4개의 현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현대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현대 성당건축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 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회 이후 교황청에서 나온 지침³⁾과 각종 전례서 및 교회법전, 그리고 국내의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여 현대 가톨릭 전례공간의 성단구성과 성물디자인의 계획지침을 정리한다.

분석의 기준은 전례현장에 제시한 다섯 가지 - ① 신학(theology), ② 역사(history), ③ 사목적 고려, ④ 실제적 요구, ⑤ 유기적 성장의 고려 -⁴⁾이다. 이러한 기준은 전례혁신을 재검토하고 공의회에 대한 진실한 건축적인 응답을 찾는 데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2. 성단의 의미와 구성요소

성당 내부공간 구성의 출발점은 “여러분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시오”(루가 22, 19)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뜻은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들과 했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신자들이 사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과 표징을 반복하여 행할 때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신자들 사이에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현존한다. 이와 같이 하느님 백성들의 행위는 교회 내부공간 구성을 위한 원칙이 된다. 어디에 어떻게 성당이 세워지든 항상 근본적인 것은, 미사에 참여하는 사제와 신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그 자체로서 본질적인 예배장소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미사예식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당 내의 배치는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각각의 역할이 미사 중에 기능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집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적합한 주례자와 봉사자의 자리가 필요하고, 회중과 성가대의 자리도 능동적인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⁵⁾

성단을 구성하는데는 제대, 사제석, 독경대, 십자가상, 감실, 낭독대(해설대), 성찬란, 제의실 등 7가지의 전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중 제대, 사제석, 십자가상, 독경대는 미사에서 그리스도 현존을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감실은 가톨릭의 봉헌적인 삶의 초점이고 성체성사와 관련된 중요한 설비이다. 그러

2) 전례현장 7장(122-130)은 교회미술과 제구 및 제의에 관한 장인데, 교회와 미술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교회미술의 사명과 그것을 촉진하고 좋은 것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와 교육, 또 그것을 규제하는 법규의 필요성, 성당건축, 성당, 성서와 제구, 제의 및 교회용구와 장비 등에 대해 9개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3) 禮部聖省, 「전례 현장 실시를 위한 일반 지침」 1964 : 이 지침의 제 5장(90-99조)은 “신자들의 능동적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성당 및 제단의 적절한 건설”이란 제목을 붙이고 10항목의 지침을 내고 있는데 전례 현장 제 128조에 관한 구체적인 전례의 장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규로 되어 있다.

典禮聖省, 「Missale Romanum」 1969 : “로마 미사 경본의 총지침”에는 제 5장에 감사의 祭儀를 바치는 성당의 배치와 장치에 대하여 12항목 28조에 달하는 지침이 주어져 있다.

4) 전례현장 23조

5) 성당 축성 예식서 2장 1절 3항 및 미사 경본 총지침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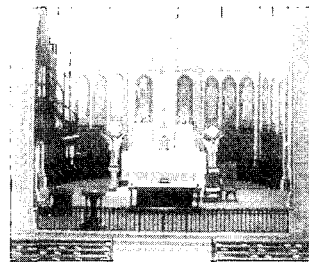
나 미사에 꼭 필요하지 않으며 정확히 말해 성단내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 위치는 현대성당 계획에서 가장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⁶⁾ 해설대와 성찬란은 전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이유에서 전통적으로 존치되어왔다.

현대 성당건축의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크고 일반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1) 제대의 위치 : 제대는 옛스나 제단벽의 근처이거나 벽에 붙여 놓였으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는 사제가 제대 주위를 충분히 돌 수 있도록 벽과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며, 신자들의 주위가 자연히 모이는 중심에 둔다.

(2) 집전사제의 방향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신자를 등진 상태로(신자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미사를 행하였으나, 지금은 마주보고 행한다.

(3) 감실의 위치 : 이전에는 성단 내 감실제대 위에 두었으나 지금은 제대 중앙 뒤쪽이나 성단의 좌 혹은 우측에 위치하며, 심지어 분리된 채플에 따로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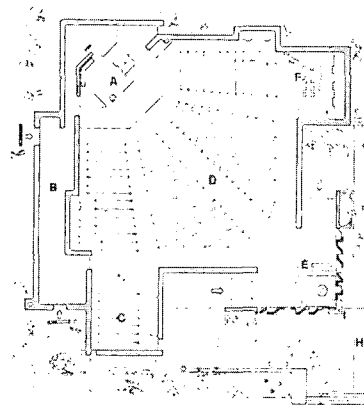
<그림 1> 명동성당 성단

공의회이후 대면식 미사를 위해 기존 제대(감실제대) 앞에 주제대를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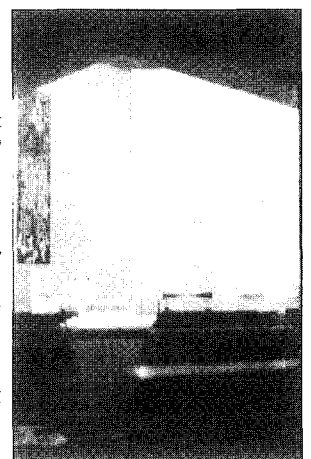
<그림 2> 내당동성당(1966)

제대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사제와 신자가 에워싸는 형태다.(현재는 개조되었음)



A:제단 B:제의실 C:경당 D:회중석 E:세례당 F:기도실 G:종탑

<그림 3> 공의회 이후 이상적인 배열의 실례 (스위스 무띠에 성당, 1967)



<그림 4> 무띠에 성당 내부

6) 김정신, 가톨릭 전례공간의 감실 위치에 관한 실천신학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건축역사학회지 제1권 1호, 1992, 참조

3. 제대(Altar)

3.1. 제대의 상징성

전례의 중심인 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봉헌이 기념되고 현재화되는 장소이고, 그리스도가 불러주는 주님의 식탁이며, 성체성사로 완성되는 감사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성당 내에서 가장 큰 존경의 대상이 된다.⁷⁾ 엄밀히 말해 교회는 여러 건물 중에서 제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제대 둘레에 지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제대야말로 교회의 시작으로서 교회건축의 존재 이유 (raison d'être)이다. 제대의 봉헌은 전체 전례의 기초이기 때문에 제대를 봉헌하지 않고 교회를 봉헌하는 것은 관습과 전례법에 의해 금지된다.⁸⁾

제대는 영원한 사제직을 거행하는 천상제대의 상징이자 그리스도 자신(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상징이다. “제대는 경의의 대상이다. 그것의 본성은 돌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은 다음에 신성해진다.”⁹⁾ 제대는 그리스도가 만나고 그의 교회를 살찌우고 성별(聖別)시키는 신성한 만남의 장소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시간과 영원히 접촉하는 장소라 말할 수 있다.

3.2. 제대의 역사

제대의 역사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사도들과 그 직제자 시대에는 예수 때처럼, 식탁이 곧 제대였다. 곧 만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축성하여 서로 나눔으로써 주님과 하나되고 서로 한 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의(祭儀)의 뜻이 더 고조되면서(1고린 10, 21) ‘주님의 상’으로 쓰이는 삼각상 또는 등근상을 신자들이 모이는 집에 따로 두기 시작하였다.

전례가 발전함에 따라 돌이 점차 제대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고대 유대교 제단은 자주 돌로 만들었으며, 야훼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도록 명령하였다.(출애 20, 25) 예수 자신도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마태 21, 42)고 확인하였다. 초기 교회는 예수가 부활한 무덤의 돌을 존경하였다. 어떤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돌제단이 로마시대 집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던 카티볼룸(cartivulum)의 수용이라고 추정하는 반면, 어떤 저자들은 카타콤바의 순교자 무덤 위에서 미사가 봉헌되었던 그 아코소리움(arcosolim)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이러한 추정은 어리석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공박하기도 한다.

교회가 전례와 신학에서 발전시킨 여러 사건들에 의해 돌 제단은 점차 나무 제단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6세기경에는 지역 교회법에 의해 돌 제단이 요구되기도 하였고,

7) 예부 성성, *Eucharisticum Mysterium*(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 1967, 24.
8) 성당 축성 예식서, 3장 1항
9) 성당 축성 예식서, 4장 23항

12세기경에는 실제 돌 제단이 보편적이었다. 9세기 말경부터는 제대 위에 여러 성인의 유해를 모셔놓는 관행이 생겨 그 형태가 많이 달라졌으며 마침내 제대는 그 신성한 독자성을 잃게 되고 벽에 가 붙으면서 과도한 장식¹⁰⁾으로 그 의미가 흐려졌다. 제대변형의 마지막 단계는 16세기부터(일부 종교개혁에 맞서) 제대 위 한가운데 감실을 두는 관습이 생겼으며 더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3. 제대의 형태와 재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는 제대가 고정 또는 이동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미사 경본 총지침 260) 그리스도 상징으로서의 초대교회의 개념은 계속 존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제대는 돌로, 그것도 주님의 신체적인 통일을 상징하기 위해 하나의 자연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교회법 1236조 및 성당 축성 예식서 4장 9항),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의 표시로서 고정되어야 한다.(교회법 1235조 2항). 교회가 모든 제대를 돌로 하기로 한 1596년¹¹⁾의 결정이 아직 유효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많이 무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나무제대가 바람직하다는 어떠한 증거가 공의회 문헌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나무 제대는 계속 증가되었다. 이것은 전례운동의 결과로서 식사를 위한 모임을 더욱 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당의 주 제대는 반드시 봉헌되어야 하고, 이동 제대는 봉헌되거나 축복된다(교회법 1237조). 제대 축성시에 그리스도의 5상(傷)을 나타내는 5개의 십자가를 제대 상판 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크리스마 성유로 바른다.

제대의 형태는 이전의 리어도스에 붙은 길게 늘어진 제대보다 정방형 또는 약간 긴 장방형이 좋다. 물론 이것은 석관과 그리스도가 부활한 무덤의 돌의 상징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회중의 주의를 제대 위의 제사로 되돌리는 이점이 있다. 장방형 형태는 역사적으로 더욱 희생제와 연관되며 긴 장방형 테이 붙은 더욱 식사를 떠올리게 한다.

제대가 보다 작아지고 정방형으로 돌아감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회중석을 향한 시각적 터미널로서의 힘과 성당의 초점으로서의 탁월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사의 공동 집전을 어렵게 한다. 작은 제대의 탁월성 문제는 제대 위의 천장 장식이나 캐노피(canopy), 시보리(civory)¹²⁾

10) 유해합과의 결합은 바로크시대 제단 뒷편의 장식병풍인 리어도스(reredos)로 유도되어 성단(sanctuary)의 중앙에 독립하여 서 있던 것이 뒷벽에 통합되었다. 그리하여 제대 자체는 성단 전체의 구성보다 덜 중요시되기도 하였다.
11) 1588년에 창설된 예부성성에 의해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전례 개혁 결과가 로마 주교예식서(1596년)로 간행되었다.
12) 베드로 대성당의 베르니니가 디자인한 것과 같은 석재 금속제, 또는 목제의 기둥에 의해 받쳐진 구조물.

등의 건축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제대 주위의 동선이나 회중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4. 제대의 장식

제대를 그 품위에 맞도록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그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대는 감실, 십자가, 성체등, 성상과 꽃을 위한 기저(基底)가 아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제대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사를 행할 때 제대에는 적어도 한 장의 제대포를 씌운다. 그 모양, 크기, 장식 등은 제대 구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 위에 적어도 두 개나 네 개 또는 여섯 개의 촛불을 켜 놓는다.¹³⁾ 교구장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경우는 일곱 개의 촛불을 켜 놓는다.¹⁴⁾ 촛대는 제대의 장식에 속하나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하고 존경과 축제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을 꼭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다. 제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례의 장 전체와 제대 위에 놓여지는 것들이 잘 보이도록 배려하여 제대 가까이 세울 수 있는 촛대가 더 바람직하다.

아직도 순교자와 여러 성인들의 유해를 제대 안에 안치하는 고대의 풍속이 지속되고 있다.¹⁵⁾ 제대 아래 안치되는 유골은 인간 신체의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며, 그것의 진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유해를 안치하는 것보다 유해 없이 봉헌된 제대가 더 좋다. 또 이전처럼 제대 위에 유해함이 놓여져서는 안된다.¹⁶⁾ 그러나 지지대나 바닥아래에 놓이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3.5. 사제의 방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거의 보편적으로 사제는 회중을 향한 일종의 “대면식 미사”를 거행한다. 공식적인 명령이 없었지만 그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전례현장이 제대를 벽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회중을 향한 미사가 가능하게 된 때문이지만 공의회 중에 처음으로 TV로 방영된 교황의 베드로 대성당에서의 미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회중을 향한 바실리카식 배열을 보여 준 이래 새로운 규범이 된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¹⁷⁾ 지금은 규범이 되었지만 그것이 건축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톨릭 전례의 동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중을 등진 사제는 비밀스럽고, 엘리트적인, 그리고 평신도와 꽤 분리된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사제와 신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면 사실 그들이 삼위일체적인 예배 행위로서 같은 일(미사)을 하는 것이 된다. 사제가 회중을 인도하며 그 배열은 얼굴을 알 수 없는 다소 익명의 사제가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예수’ 라는 것을 환기시킨다.

그러면 회중과 마주보는 사제의 위치가 과연 신자들의 적극적인 전례에의 참여를 돕는가? 혹시 신자들은 오히려 영화관이나 극장에서의 관람객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사제와 마주보고 미사를 드리는 일반 신도가 전례에서의 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칭거(Ratzinger) 추기경이 지적하듯이 서로 마주보는 사제와 신자들은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성찬식에 탁월성을 부여하는 격정적인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긴밀한 원으로 회중을 끌어낼 수 있다.”¹⁸⁾ 또한 상식적인 측면에서 제대를 사이에 둔 배열은 분리된 ‘그리스도의 몸’을 암시할 수도 있다. 사제는 관람하는 회중들을 위해 다른 무엇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신자와 사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둘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다. 중세까지 회중을 향한 미사가 뚜렷한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반종교개혁까지의 대다수 교회는 동쪽을 향했다. 최후의 만찬의 전형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같은 편에 앉은 주님과 사도들이 식탁의 다른편으로부터 봉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지중해 문화의 향연(饗宴)의 일반적인 배열이다. 그렇지만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많은 것을 구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의적(教義的)인 내용이지 실제 전례 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교자의 석관(石棺) 위에서, 행해졌던 카타콤 미사는 아코스리움(arcosolium)이 보통 벽을 등진 것으로 보아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예배를 보았을 것이며, 초기 시리아 교회는 엡스나 회중석의 중앙에 제대를 놓았다. 중요한 것은 사제가 어떤 방향으로 신자들을 면하는가가 아니라 우주적인 전례의 일부로서 모두가 동쪽을 향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회중과 마주하는’ 에집트 교회에서도 성찬 기도시 ‘동쪽을 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대를 등지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10세기경까지는 미사가 회중을 향해 거행되더라도 사제의 탁월한 위치는 벽면을 등지고 제대를 바라보는 위치였다. 점차 동향(orientation)에 대한 고려는 사라졌다. 바로크 성당들은 고대의 참조 없이 지어졌는데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 리어도스(reredos)는 회중과 무관한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와 인식이 변하면서 사제와

13) 어떠한 경우라도 한 사제가 드리는 미사를 위해서는 두개의 초로 족하다. 또 1년을 통해 평일의 장엄 미사 및 제3급 축일의 미사에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일요일 및 제2급 축일의 장엄미사에는 4개의 초가 필요하고, 대축일의 장엄 미사에는 6개가 필요하다. (주교 전례서 제 1권, 제 12장, 11, 16, 24)

14) 미사 경본 총지침 79.

15) 미사 경본 총지침 266.

16) 성당 축성 예식서 4장 11항

17) Bouyer, Liturgy and Architecture, pp.105-106

18) Ratzinger, J. : Feast of Faith, IGNATIUS 1986, p.142.

회중은 각기 다른 분리된 일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3.6. 새로운 제안

지금까지 검토해 보았듯이 핵심은 사제와 신자가 마주보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방향 잡기(orientation)였다. “제대 주위로 에워싸야 (turned)”한다는 것은 잘못된 고고학적 결론이다. 공의회와 진실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 actuosa)’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방향(orientation), 지향(direction), 위치(position)의 문제와 제대와 성단의 회중석에 대한 관계를 재 고찰해야 한다. 교회의 결정적인 모델로서 19세기의 교회를 그대로 채택 하여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공의회 이후의 형태를, 특히 사목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허약성을 지닌 형태를 묵계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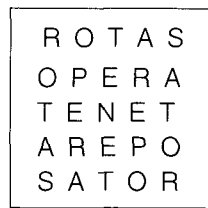
교회의 신비를 표현하는 “위계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하느님의 일반 백성” —전적으로 상반되지 않는—을 반영하는 건축적인 배열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관람자로 전락하는 위험없이 미사 성제에 신도들의 진실한 참여를 촉진하는 배열.
- 둘째, 성직과 평신도 사제직의 진정한 구별을 반영하는 배열.
- 셋째, 제대의 참다운 탁월성을 부여하는 배열.
- 넷째, 교회 전체 —사제와 신자—가 한 방향(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고대의 깊은 크리스찬 행위를 회복하는 배열.

냐하면 미사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상의 죽음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상은 미사의 전체 의미를 그대로 상징한다.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되어 묘사할 수 있게 되었고, 성체 안에서 다시 교회가 된다는 육화(Incarnation)의 신학을 구체화한다.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되고 종의 신분을 취하여¹⁹⁾ 세상의 죄를 덮어쓰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다양한 양상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눌 신자들의 임무를 일깨운다.

(2) 역사

초기 교회부터 십자가상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왔다. 성 바울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1고린 2,2 ; 갈라 3,1 ; 6,14)를 전도하였다. 어떤 책에서는 초기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이교도들의 형틀과 연관되기 때문에 상징으로 쓰기를 거부



<표 1> Sator Square

하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충분한 고고학적 근거가 있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Sator Square”는 가로·세로 방향을 읽어서 알파로 시작하여 오메가로 끝맺는 ‘우리 아버지’ A—PATERNOSTER—의 십자가가 재구성되는 아나그램(anagram)²⁰⁾이다.

십자는 앵커, 나무, 쟁기, 사닥다리와 같은 것을 통해 그리스도교도의 무덤관에 일반적으로 들어 있었다. 십자가는 초기 교회에 의해 희망과 승리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면 순교자 자스티노(Justinus)는 십자가를 배의 돛으로 보아 “이 승리의 표시 없이 항해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쟁기도 역시 십자가 형태인데 “이 십자가 없이는 땅을 경작할 수 없다.” 다른 문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실 동쪽 벽에 십자가를 배치했던 초기 풍습을 기술하고 있다. 처음엔 재림의 상징으로, 나중에 수난을 회상케 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초기에 십자가는 두 팔을 수평으로 벌린 모습의 기도자의 뜻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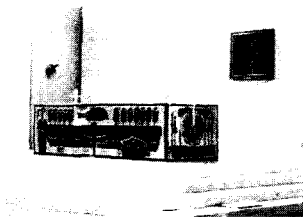
콘스탄틴의 승리와 진짜 십자가의 발견(AD 326년)후 십자가는 “영광의 표징”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여전히 십자가는 chi-rho 상징인 새끼 양 또는 클라세의 성 아폴리나레(St. Apollinare in Classe) 성당의 앱스 모자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와 함께 묘사된다. 6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리스도는 승리의 구세주, “부활의 십자가”로서 보인다. 11세기 이후 사실적인 표현의 십자가가 대중화된다. 13세기부터는 보통 죽어서 감은 눈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떨어진 옷에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쓴 모습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부활 십자가는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럽의 십자가상은 죽었거나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덜 사실적이다.

(3)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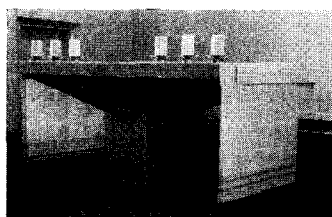
십자가상의 전례적인 사용은 미사를 갈바리아(Calvaria)의

19)필립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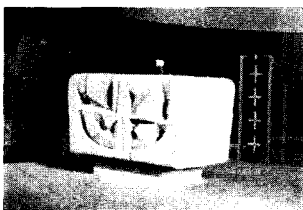
20)철자를 바꿔 만든 낱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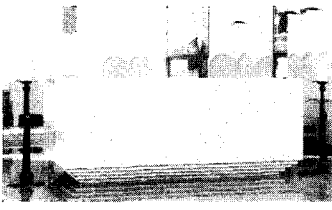
<그림 5> 제대의 예 - 1



<그림 6> 제대의 예 - 2



<그림 7> 제대의 예 - 3



<그림 8> 제대의 예 - 4

4. 제대 주변의 성물

4.1. 십자가상(The Crucifix)

(1) 십자가상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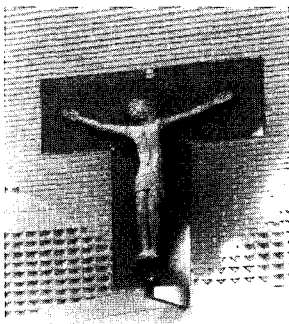
제대 다음으로 중요한 전례의 성상(icon)은 십자가상이다. 왜

주님 희생 맥락 안에서 거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제대와 제대 위 또는 제대 근처와 연결된다.²¹⁾ 전통적으로 십자가는 동쪽 벽에 붙어있어 미사시 사제와 신자들이 그것을 향하므로 미사의 공통된 초점이 되어왔다. 오늘날 회중을 향한 미사에서 사제는 벽에 붙은 십자가를 등지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제대 위에 작은 또 하나의 십자가가 놓일 수 밖에 없다. 라칭거 추기경은 일종의 “개방된 성상”으로 보아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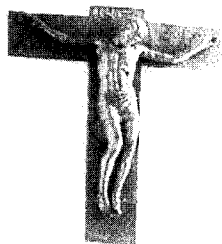
“사제가 신자들을 향할 때 십자가는 제대 위 사제와 신자가 볼 수 있도록 놓을 것이다. 성찬식에서 그들은 서로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만을 보아야 한다”(즈가 12,10 ; 묵시 1,7).²²⁾

따라서 제대 위에 놓은 십자가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지향을 끌어모아 통일시키는 이미지이다.” 전체 회중에게 이 공통 초점을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열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말씀의 전례는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의 전례는 신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 신자석과 제대의 거리 등에 따라 다를 것이며, 회중석에서 쉽게 보이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나 행렬 십자가는 필수적으로 보다 작다. 십자가상은 또한 명상의 도구로서도 봉사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디테일이 요구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인체 크기의 십자가가 적합하다.



<그림 9> 에브리성당 십자가상



<그림 10> 성환성당(1996)

디테일도 역시 중요하다. 부활 십자가의 사용은 수난의 부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은 경고로 이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직선 통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십자가가 신성한 구세주의 몸이 그의 무서운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²³⁾ 십자가가 너무 사실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

21)미사 경본 총 지침 270

22)Ratzinger, Feast, p.144

23)Mediator Dei, 66

은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십자가 승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인 십자가는 매혹적인 슬픔, 믿음과 사랑, 십자가형의 고요함과 고귀함을 표현해야 한다.

4.2. 사제석(The Chair)

(1) 의미와 역사

미사 집전 신부를 위한 특별한 의자는 신부가 주교였던 초기부터 비롯되었다. 주교좌(主敎座, cathedra)는 주교관(主敎冠)이나 주교의 목장(敎杖)보다 몇 세기 앞선다. 사도들이 그들이 설립한 교구에 주교좌를 확립하였는데 최소한 그 중의 하나는 안티오키아의 베드로좌 축제의 고대 축전에서 여전히 기념되고 있다. 의자의 상징은 그리스시대 철학 학교의 카테드라(cathedra)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교육의 상징이다. 주교가 듀라—유로포스와 같은 데서 작은 단에 자주 앉아가르치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또한 교구를 통치하는 주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바실리카의 재판관 의자를 참조했음도 분명하다.

주교좌는 오로지 주교만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 초기의 형태는 곧 로마인들이 사용하였던 간단하고 접을 수 있는 등받이 없는 안락 의자였는데 차츰 등받이가 높은 옥좌(玉座)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보통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는데 카타콤바의 암석에 조각되어 있기도 하다. 콘스탄티누스의 승인 이후 교회는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주교좌는 더욱 정교하여지고 옥좌와 같이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아우구스티노시대(5세기)에 이르러서는 주교좌가 높은 단에 올려지고 캐노피로 덮거나 커튼으로 드리워졌다.

주교는 “신품성사의 총만함을 누리고, 최고 사제직의 은총을 관리하는”²⁴⁾ 후계자이기 때문에 주교좌는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주교가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제의 권위는 주교로부터 파생되고 주교에 의해 보장됨을 의미한다. 초기 교회의 주교와 사제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사도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St. Ignatius, 3대 주교)는 그들의 주교를 따르도록 트랄리아인에게 말한다. 그리고 스미르나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르듯이 모두 주교를 따르라. 그리고 당신의 사제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사도가 된다.”²⁵⁾

교구의 전례 생활은 주교를 중심으로 하며 특히 그의 주교좌 성당에서는 이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주교의 의자는 그리스도 통치의 상징이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되어야 한다. 주교좌는 여전히 신도들을 가르치는 “선포의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회중석에서 쉽게 보이는 것에 위치한다. 제 2차 바티칸

24)Lumen Gentium, 26.

25)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Phil. 4 Tral. 2, Smyr.8.

공의회 이전에는 오직 주교만이 특별한 유형의 의자를 가졌을 뿐, 그 이하의 성직자는 세딜라(sedilla)라 불리는 이동식 벤치에 앉았다.

(2) 사제석의 위치와 형태

공의회 이후 집전 사제의 의자가 중요시되었다. 아마도 하느님 백성의 사고에서 표현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집전 사제석은 주교좌(cathedra)에서 파생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중요한 장소, “앉았을 때 모든 회중을 진실로 관장할 수 있도록” 그 의자는 성단의 중앙이나 정점에 제대 뒤편 회중석을 향해 놓이도록 권장한다. (고정된 요구 조건은 아니다). 옛 성당을 재배열 할 때 제대 뒤편에 놓을 공간이 없다면 강론대 반대편에 놓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제석이 회중을 관장하고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 그렇지만 사제석은 옥좌의 형태를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구를 통치하는 것은 오로지 주교이지 사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제석은 그가 봉사하는 것이지 통치하지 않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집전 사제석 양편에는 복사석이 놓이는데 보통 보다 작고 팔걸이가 없는 의자가 봉사에 좋다. 그 밖의 봉사자석은 그러한 기능에 맞도록 편리한 위치에 놓인다.

4.3. 독경대(The Ambo)

(1) 의미와 역사

복음의 선포로 절정에 달하는 말씀의 전례는 미사의 종합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는 서로 매우 연결되어 있어 오직 하나의 경신 행위를 이룬다.²⁷⁾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현존의 뚜렷한 선포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성서가 교회에서 봉독될 때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다.”²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 속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복음과 설교는 신품을 받은 사제와 부제에게만 위임된 것이다. 복음을 낭독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으로 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존경으로 낭독되는 다른 것과 구별되며, 특정 사제가 그것을 선포하도록 지명되고 기도와 축복으로 스스로 준비토록 한다. 서서 그 낭독을 듣고 환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현존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인식한다.²⁹⁾

독경대는 4세기부터 중요한 의미와 자리를 차지한다. 그 본래의 상징은 빈 무덤으로서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외치며 노래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조금 높은 동산의 모양을 따기도 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등의 부조를 새겨 측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그 곁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훌륭한 부활 촛대를 세우기도 하였다.³⁰⁾

역사적으로 독경대는 부제(副祭)의 전례적 자리였다. 그것은 부제가 빈무덤의 사자(使者)로서 제단과 회중석 사이를 오가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돌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직의 안수를 받은 자만이 부활을 선포하고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 말씀의 선포에 화답하여 송시직자(頌詩職者)를 선창으로 단하 총계에 자리한 소성대가 이른바 총계송과 알렐루야를 회중과 어우러져 노래하였던 것이다.

성서봉독에 이어 주교는 강론을 하였다. 주교는 그의 주교좌나 제대 아래에 있는 등받이 없는 접이 의자에서 가르쳤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 특히 콘스탄티누스의 해방이후 들어올려진 플랫폼 또는 독경대가 사용되었다. 구약(느헤 8,3 ; 에스 9,42)에서의 형태를 참조하였으며, 분명 유대교의 시나고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지고 전형적으로 장식되었는데 점차 커지고 더욱 화려해졌다.

한 개의 독경대가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독경대-복음서 독경대와 서간경 독경대-가 있었다. 복음서 독경대는 보통 봉독자만이 아니라 양쪽에 촛대를 지지하는 두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크며, 서간경 독경대는 서간을 영창하는 상단(上壇)과 강연을 하기 위한 하단(下壇)으로 나누어진다. 독경대는 성경 봉독의 영창을 위해 8세기에서 10세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나 13세기에는 사용치 않게 되었다.

문화가 바뀌고 비잔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성경 봉독 영창은 차츰 독경대(ambo)대신에 설교대(pulpit)에서 행해졌다. 12세기에 처음 등장한 설교대는 내진 아치의 기둥으로부터 돌출 되어 나오거나 난간에 의해 둘러싸인 간단한 플랫폼이었다. 독경대와 같이 설교대도 점차 커지고 높아져 더욱 장식적이고 탁월한 것이 되었다. 15-16세기의 설교대 상부에는 가끔 캐노피가 드리워졌다. 오늘날 설교대는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독경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서서히 부활되고 있다.

(2) 위치와 형태

독경대는 흔히 편의상, 사제석 가까이 세워지기 쉽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돌보이게 따로 있고 회중 가까이, 심지어 회중 가운데 세우는 것도 공간구조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례행장은 “전례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성경에 대한 감미롭고 생생한 사랑”을 조장하고 있다.³¹⁾ 이어서 계시 현장은 “특별히 거룩한 전례에서” 성경의 위치를 재강조하고 있다.

26)미사 경본 총지침 271

27)Sacrosanctum Concilium, 56.

28)Eucharistium Mysterium, 9.

29)미사 경본 총 지침, 35

30)장익, 성당 내부(뜻과 쓸모와 아름다움을 찾아서),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천주교서울대교구 해화동 교회, 1996, p.65

31)Sacrosanctum Concilium, 24.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 “주님 말씀의 권위는 교회가 말씀의 전례시 회중들의 주의를 쉽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합당한 장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경대는 단순히 움직일 수 있는 스탠드가 아니라 고정되어야 하며, 사제가 쉽게 보일 수 있고 신자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 한다. 임시의 일시적인 독경대는 적절하지 않다. 몇몇 사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에, 필요하다면 조명과 마이크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독경대는 이름 그대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데에만 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에는 성서를 그 위에 펼쳐 모셔둠으로써 그 뜻과 품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4.4. 해설대(The Lectern)

말씀의 전례가 선포를 위한 분리된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비전례적인 발표나 안내는 분리된 낭독대 (lectern)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 3개의 분리된 장소—복음과 강론을 위한 성서 봉독대와 다른 독서, 응답송 신자들의 기도를 위한 또 하나의 성서 봉독대, 그리고 기타 비전례적인 용도의 낭독대(해설대, lectern)—가 필요한가는 전적으로 예절적인 문제이다. 성서 봉독대(ambo)와 낭독대(lectern)는 반드시 따로 필요하다.³²⁾ 왜냐하면 해설자, 선창자, 성가대 지휘자가 성서 봉독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낭독대는 분명히 보다 작고 탁월하지 않지만 전례적인 비품과 잘 조화되게 배열하여야 한다.

4.5. 성찬란(The Rail)

(1) 역사와 형태

제대 난간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라졌다. 많은 아름다운 대리석 난간이 거의 예외없이 급작스레 제거되었다. 당시의 정서는 제대 난간이 그리스도의 분리된 몸을 표현하는 성직(聖職)의 도상(icon)이며 주님의 식탁 주위로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대와 신자석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러나 전례 현장에 요약된 5개의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하게 제거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로부터 건축적인 고안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³³⁾

(2) 전례적 의미와 문제

제대 난간은 전례적인 요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성찬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제대에서 받아 모신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성찬란은 제대의 연장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대와 다소 비슷하게 (재료, 양식, 장식 등)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찬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사고가 없어진 셈이다. 성찬란을 대신할 상징적인 건축적 고안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의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성찬란에서 성체를 영하는 것은 또한 무릎 꿇는 자세를 쉽게 하며, 보다 사려 깊게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성찬란은 불과 몇 초만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십자가상 앞에서 성찬의 거룩한 신비를 묵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사목적인 문제

미사에서 교회는 “주님, 저는 당신을 받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성단과 회중석의 친밀한 배열에서와 같이 ‘신성한 거리’ 또는 ‘신성한 분리’의 느낌이 주어지지 않을 때, 회중은 쉽게 안락한 영역을 창조할 것이다. 성직자와 건축가는 ‘두렵고 떨리는 매혹적 신비’³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함을 요구하고 수월한 안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사랑—경외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성찬란은 노약자가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깊은 한 단 위에 높이 약 70cm, 넓이 약 15~30cm로 설치되며, 단에는 쿠션, 가죽, 고무 등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른 전례 가구와의 조화를 위해 성찬란은 재료, 형태가 제대와 다소 통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제대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사고를 미묘하게 보강할 수 있다.

4.6. 제의실(The Sacristy)

제의실(제구실)은 전례에 필요한 모든 제구, 기물, 제의 등을 보관함과 동시에 사제가 제의를 입고 준비하는 장소이다. 제의실의 요구조건은 무엇보다 기능의 충족이며 어떠한 전례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례의 집전을 준비하는 장소인 만큼, 존경과 조용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렬되어야 한다. 어떠한 관점에서든 제의실은 신성한 장소는 아니다. 따라서 축성되거나 축복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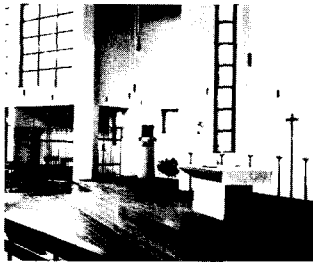
제의실은 가능한 큰 것이 좋다. 하나의 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두세 개의 인접한 방-사제 전용 제의실과 제구실, 그리고 복사나 성가대 봉사자를 위한 방 등으로 나누어도 좋다. 밝고, 난방·환기·위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문은 주교관을 쓴 주교나 행렬 십자가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34)Rudolf Otto(길희성 역), Das heilige, 분도 출판사 1987참조

32)미사 경본 총지침,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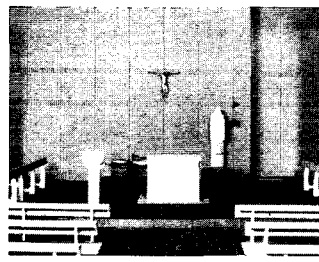
33)성단과 성가대석(choir)으로부터 회중석을 분리하기 위해 난간 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한 4세기부터이다. 동방교회에서는 초기 바실리카의 칸첼리(cancelli)에서 비잔틴의 성장(聖障, iconostasis)으로 발전하였다. 서방 교회에서도 12세기에는 칸첼리와 같은 유사한 배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제대가 회중석을 향해 개방되었으며, 일종의 ‘교회 속의 교회’를 이루었다. 양형 영성체는 선 채로 하였다. 13세기에 무릎 꿇는 행위가 성찬식에서 공통된 자세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15~16세기에 와서는 칸첼리가 성찬란(communion rail)으로 발전하였다.

제의실의 위치는 성단에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사제관이 나 외부에서의 접근 또는 회중석에서의 접근이 성단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제의실과 제구실이 구분될 경우 사제 전용 제의실은 입구에 두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에서와 같이 사제가 성단 바로 옆의 제의실로부터 순식간에 입장하는 것보다는 입구로부터 회중석을 거쳐 장엄한 행렬을 이루어 입당하는 것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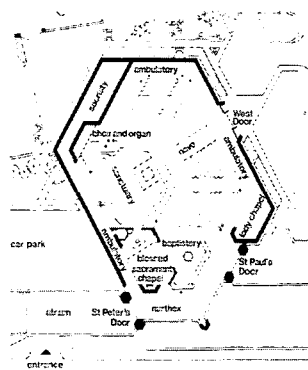
<그림 11> 독일 렘사이트 성신성당(1968)

부채꼴의 평면에 제대와 독경대, 사제석이 중앙에 모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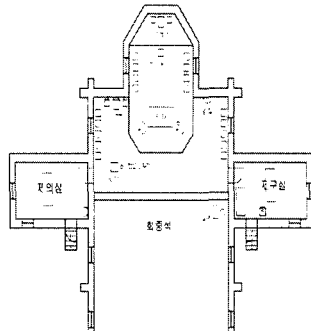


<그림 12> 독일 뒤셀도르프 빅토르성당(1984)

제대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감실과 독경대의 예, 제대는 사면으로 둘 수 있다.



<그림 13> 이상적인 성단배열의 평면도- 영국 크리스톤 성당(1973)



기존성당(1956)의 중창시 현대성당건축의 전례정신에 할당하게 성단을 재배열하였다.

<그림 14> 죽림동성당 성단구성(1999)

5. 결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건축적 내용을 '신학', '역사', '사목적 고려', '실제적 요구', '유기적 성장'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현대 가톨릭 전례공간의 성단구성과 성물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화된 전례혁신의 건축적인 성과는 성단의 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나 문헌의 해석에 있어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 재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의회의 진실한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 actiosa)'의 정신에서 제대의 방향(orientation), 지향(direction), 위치

(position)의 문제와 제대와 회중석에 대한 관계를 재 고찰해야 한다.

둘째, 십자가상은 사제와 신자의 공통된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례주년을 표현하고 목상을 안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는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교회에 스스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대와 독경대 사이에 구조적인 조화나 공간 관계를 주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째, 독경대는 흔히 편의상, 사제석 가까이 세워지기 쉽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돌보이게 따로 있고 회중 가까이, 심지어 회중 가운데 세우는 것도 공간구조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독경대와 해설대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며, 서로 위계적인 형태와 크기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제대 난간은 전례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전례현장에 요약된 5개의 기준으로 그것이 정당하게 제거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2. 김정신, 가톨릭 전례공간의 감실 위치에 관한 실천신학적 연구, 건축역사학회지 제1권 제1호, 1994
3. 김정신, 20세기 현대교회건축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건축역사학회지 제8권 제4호, 1999
4.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법 위원회 역,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5.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역, 성당 축성예식서(Ordo Dedications Ecclesiae Et Altar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6.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역, 로마 미사경본의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앙의 신비(Myster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10. 加藤常昭外, 教會建築, 日本基督教出版局, 1985
11. 土屋吉正(최석우 역),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성 바오로출판사, 1990
12. A. Adam(최윤환 역), Sinn und Gestalt der Sakramente(성사와 전례), 수원 가톨릭대학 출판부, 1991
13. Bouyer L., Liturgy and Architecture, Notre Dame University, 세진사, 1984
14. Peter Hammond, Liturgy and Architec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15. Reinhard Gieselmann, New Churches, Architectural Book Publishing Co., 1972
16. Sherrill Whiton, Interior Design and Decoration, Harper Collins, 1974
17. The National Association of Decorative & Fine Arts Societies, Inside Churches, 1989

<접수 : 2002. 12. 31>